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 인성 및 대인관계의 관계

지은선¹ · 손미선² · 심가가³

¹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간호학과, 부교수, ²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간호학과, 박사과정, ³상명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Association between a Motivation to Volunteer,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i, Eun-sun¹ · Son, Mi-seon² · Shim, Ka-ka³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²Doctoral student, RN Department of Nursing,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³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Sang Myung University at 2Campus(Cheonan)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a motivation to volunteer,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nursing students. **Methods:** A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to collect data from 185 nursing students in C city from February 1 to 28, 2018. Data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t-test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ith SPSS version 21.0. **Results:** The mean score were 3.18±0.54 of motivation to volunteer, 4.62±0.50 of personality, and 3.74±0.44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otivation to volunteer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also found between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Conclusion:** Based on study results, nursing students need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nature of human and respect others through participation in various volunteer activities, and to improve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Nurse educators should focus on the positive benefits of volunteering for nursing students and the strategies for encouraging volunteering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curriculum.

Key Words: Nursing students, Volunteers, Persona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5년부터 시작된 인성 교육진흥법과 인성을 반영한 기업 인재 채용[1]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은 인성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생의 인성은 바람직한 민주시민의식의 바탕을 이룰 뿐 아니라 대인관계를 향상시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나[2, 3], 각 대학들은 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해 신입생 전형 기준에 인성 영역을 포함하고 인문학 강좌를 확대하며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4, 5].

간호교육에서도 전문성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 즉,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는 인성이 강조되고 있다[6]. 또한 임상 간호사는 병원에서 만나는 다양한 환자의 마음, 감정, 느낌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

주요어: 간호대학생, 봉사활동, 인성, 대인관계

* 이 논문은 2019년도 건국대학교 연구미일리지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This paper was supported by Konkuk University in 2019.

Corresponding author: Kaka Shim (<https://orcid.org/0000-0003-4560-381X>)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Sang Myung University at 2Campus(Cheonan)

31, Sangmyeongdae-gil, Dongnam-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31066

Tel: +82-41-550-5433 Fax: +82-41-550-5545 E-mail: shimka2@smu.ac.kr

Received: 10 March 2020 Revised: 23 April 2020 Accepted: 29 April 2020

여야 하므로 환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보호자, 의사 및 타 부서의 의료진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효과적이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임상현장은 간호 업무의 특성상 스트레스를 쉽게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및 동료 간의 대인관계 문제는 신입간호사의 이직률에 영향을 주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기도 하였다[7]. 따라서 간호사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성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간호교육이 필요하다.

봉사활동 참여는 봉사자에게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이해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경험을 제공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배워 인성을 함양시키고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3, 8, 9]. 간호대학생은 봉사활동 참여를 통하여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신체 및 정신건강을 돌보며, 윤리의식과 문제 해결능력을 함양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감성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등의 기회를 갖는다[3, 10]. 특히 전공과 연계된 봉사활동은 간호대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현장의 지식을 비교하며 적용하고,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볼 수 있는 산학협동의 장이 되기도 하며,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후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간호전문직으로서 현장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정체성 확립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1, 12].

최근 봉사활동의 참여 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무조건적인 이타주의적 동기뿐만 아니라 성취 지향적 동기, 권력 지향적 동기, 사회 친화적 관계 형성 등 자아 지향적 이유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보고하였다[13]. 간호대학생을 전인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동기를 강조하는 것이 봉사활동의 참여 경험이나 참여 빈도 못지않게 중요하다[14]. 더불어 간호대학생의 인성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부 때부터 봉사활동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꾸준히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3, 15].

대학생의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봉사활동의 지속성 및 실태조사[16],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 그쳤을 뿐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와 대인관계, 인성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 인성, 대인관계 정도 및 차이를 확인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간호대학생의 대학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인간중심의 박애정신을 실천하려는 간호사의 인성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 인성, 대인관계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 인성, 대인관계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봉사활동 참여 동기, 인성, 대인관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 인성 및 대인관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와 인성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편의추출법을 사용하여 충청북도 C시의 일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총 19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작성이 미흡한 5명을 제외한 185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측 검정 유의수준 .05, 상관관계분석에서의 중간효과 크기인 .3, 검정력 80%로 대상자 수를 산출한 결과 67명으로 최소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17].

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C시 소재 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하였다(IRB No: 7001355-201801-HR-226).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2월 1일부터 27일까지로, 연구자가 직접 전화 문자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대상자의 익명성, 비밀보장, 설문지 작성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참여 동의서와 설문지는 온라인 주소를 접속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설문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무기명으로 조사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소정의 사례품(상품권)을 증정하였다.

4. 연구 도구

1) 봉사활동 참여 동기

봉사활동 참여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Farrell, Johnston, Twynam[18]과

Strigas, Jackson[19]이 개발한 것을 Kwak[20]에 의해 수정·보완한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 동기 측정 도구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 개발적 동기(8문항), 대의적 동기(5문항), 외부적 동기(4문항), 여가적 동기(5문항)의 4개 영역,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1점에서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 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9였다.

2) 인성

Lee, Kang과 Kim[21]이 개발한 학생용 '바름인성척도'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60개 문항으로, 인지 영역 23문항, 정의 영역 25문항, 행동 영역 12문항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인지 영역은 도덕적 인식 4문항, 도덕적 가치를 알 7문항, 도덕적 추론 3문항, 반성적 의사 결정 3문항, 자기 이해 3문항, 주도 삶에 대한 인식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의 영역은 양심 5문항, 자기 존중 4문항, 감정 이입 5문항, 선에 대한 사랑 4문항, 자아 통제 2문항, 공동체 의식 5문항, 행동 영역은 의지 능력 7문항, 습관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6점까지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96,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6이었다.

3) 대인관계

Schlein 등[22]이 개발한 'Relationship Change Scale'을 Chun[2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35개 문항, 7개의 하위 영역(만족감 4문항, 의사소통 4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5문항, 이해성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고, 총점은 25점에서 12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는 .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sio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성, 대인관계, 봉사활동 참여 동기의 차이는 t-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추후 검정으로는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평균 연령이 21.66±2.19세였으며, 여학생이 93.5%였으며, 3학년이 33.0%로 가장 많았다. 종교가 없는 학생이 61.6%였고 경제 상태는 '중'에 해당하는 경우가 82.7%였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58.4%, 봉사활동 참여 시간은 '30시간 이하'가 44.3%, 봉사활동 기관은 중복 응답으로 '노인 관련 기관' 27.2%, '장애인 관련 기관' 14.6%, '외국인 관련 기관'이 11.5%였다. 봉사활동 형식은 '단체'가 44.9%, 봉사활동 내용은 '전공과 관련 있음'이 45.4%, 봉사활동 만족도는 '만족'이 80.5%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8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ean±SD
Age (year)		21.66±2.19
Gender	Male	12 (6.5)
	Female	173 (93.5)
Grade	1 st	33 (17.8)
	2 nd	59 (31.9)
	3 rd	61 (33.0)
	4 th	32 (17.3)
Religion	Have	71 (38.4)
	Haven't	114 (61.6)
Economic status	Good	11 (5.9)
	Fair	153 (82.7)
	Poor	21 (11.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ean±SD
Specialty satisfaction	Satisfied	108 (58.4)
	Neutral	61 (33.0)
	Dissatisfied	16 (8.6)
Volunteer hour	≤ 30	82 (44.3)
	31 ~ 60	47 (25.4)
	≥ 61	56 (30.3)
Volunteer organization	Hospital	27 (9.4)
	Children center	30 (10.5)
	Disabled person's center	42 (14.6)
	Senior center	78 (27.2)
	Community	27 (9.4)
	Public institute	22 (7.7)
	Foreigner's institute	33 (11.5)
	Others	28 (9.8)
Volunteer type	Personal	29 (15.7)
	Group	83 (44.8)
	Both	73 (39.5)
Specialty relevance	Yes	84 (45.4)
	No	28 (15.1)
	Both	73 (39.5)
Volunteer satisfaction	Satisfied	149 (80.5)
	Neutral	36 (19.5)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otivation to Volunteer,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185)

Variables	Mean±SD
Motivation to volunteer	3.18±0.54
Self-development	3.36±0.73
Altruism	3.66±0.68
Outside	2.64±0.61
Leisure	2.87±0.86
Personality	4.62±0.50
Cognitive	4.66±0.53
Justice	4.77±0.54
Behavior	4.22±0.65
Interpersonal relationships	3.74±0.44
Satisfaction	3.69±0.60
Communication	3.74±0.55
Trust	3.62±0.55
Friendliness	3.90±0.54
Sensibility	3.80±0.62
Openness	3.64±0.56
Understanding	3.86±0.52

SD=Standard Deviation

2. 대상자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 인성 및 대인관계의 정도

대상자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의 평균은 3.18±0.54점이었고, 하위 영역 중에서 '대의적 동기'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인성의 평균은 4.62±0.50점이었고, 대인관계는 평균점수가 3.74±0.44점이었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봉사활동 참여 동기, 인성 및 대인관계의 차이

대상자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는 전공 만족도($F=8.76, p<.001$)와 봉사활동 만족도($t=3.71,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인성은 전공 만족도($F=11.44, p<.001$)와 봉사활동 만족도($t=3.24, 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인관계는 전공 만족도($F=10.70, p<.001$), 봉사활동 만족도($t=2.87, 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4. 대상자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 인성, 대인관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대인관계는 인성($r=.69, p<.001$) 및 봉사활동 참여 동기($r=.30,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인성과 봉사활동 참여 동기($r=.33, p<.001$) 또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Table 3. Motivation to Volunteer,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5)

Characteristics		Motivation to volunteer		Persona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3.14±0.77	-0.19	4.85±0.59	1.64	3.89±0.58	1.25
	Female	3.18±0.52	(.856)	4.60±0.49	(.102)	3.73±0.42	(.212)
Grade	1	3.23±0.57	0.84	4.68±0.47	0.27	3.70±0.48	1.53
	2	3.23±0.52	(.475)	4.63±0.44	(.845)	3.78±0.43	(.207)
	3	3.15±0.55		4.58±0.60		3.79±0.43	
	4	3.06±0.50		4.59±0.46		3.61±0.40	
Religion	Have	3.19±0.59	0.37	4.61±0.51	-0.23	3.74±0.41	0.09
	Haven't	3.16±0.50	(.712)	4.62±0.50	(.816)	3.74±0.45	(.930)
Standard of living	Good	3.40±0.54	1.25	4.58±0.74	0.12	3.78±0.47	0.24
	Fair	3.15±0.50	(.288)	4.61±0.47	(.885)	3.73±0.42	(.784)
	Poor	3.23±0.74		4.66±0.61		3.79±0.55	
Specialty satisfaction	Satisfied a	3.28±0.48	8.76	4.75±0.44	11.44	3.85±0.41	10.70
	Neutral b	3.11±0.59	(<.001)	4.49±0.49	(<.001)	3.62±0.43	(<.001)
	Dissatisfied c	2.72±0.42	a,b>c	4.23±0.64	a>b,c	3.44±0.43	a>b,c
Volunteer hour	≤ 30	3.20±0.52	0.05	4.54±0.55	0.88	3.69±0.48	0.64
	31 ~ 60	3.16±0.42	(.949)	4.62±0.41	(.419)	3.72±0.34	(.526)
	≥ 61	3.18±0.65		4.66±0.51		3.78±0.42	
Volunteer type	Individual	3.21±0.54	0.35	4.58±0.54	0.13	3.77±0.39	0.21
	Group	3.20±0.54	(.706)	4.64±0.50	(.874)	3.72±0.45	(.809)
	Both	3.14±0.54		4.61±0.50		3.76±0.44	
Specialty relevance	Yes	3.24±0.53	2.14	4.65±0.54	2.42	3.76±0.46	0.84
	No	3.00±0.42	(.120)	4.42±0.60	(.092)	3.64±0.44	(.435)
	Both	3.17±0.58		4.65±0.41		3.76±0.42	
Volunteer satisfaction	Satisfied	3.24±0.52	3.71	4.68±0.48	3.24	3.79±0.44	2.87
	Neutral	2.89±0.53	(<.001)	4.38±0.55	(.001)	3.56±0.36	(.005)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4. Correlations among Motivation to Volunteer,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185)

Variables	Motivation to volunteer	Persona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r (p)	r (p)	r (p)
Motivation to Volunteer	1		
Personality	.33 (<.001)	1	
Interpersonal Relationships	.30 (<.001)	.69 (<.001)	1

논 의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 인성 및 대인 관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간호대학생들은 봉사활동 참여 시간이 30시간 이상 지속하는 경우가 55.7%이며 2학년과 3학년에 집중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보다 봉사활동 참여율이 높았고[3, 14], 간호대학생

의 봉사활동 참여율보다 다소 낮았다[25]. 간호대학생은 인성을 강조하는 임상현장의 요구 때문에 취업 시 봉사활동 경력을 자기소개서에 기술하기 위하여 참여하고, 간호교육인증평가의 기준에 따른 교과운영으로 봉사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25]. 이런 배경 때문에 많은 대학에서 봉사활동 참여를 필수과목으로 평가하는데, 본 연구의 대상이 속한 대학에서도 비교과 활동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강제성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비교하기 어려웠지만 평균점수가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봉사활동 참여 동기는 자기확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24] 봉사활동을 통해 지식 및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고, 세계를 넓게 보는 시간을 가지며, 비판적 사고능력 증대 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위영역 중에 대의적 동기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개발적 동기, 여가적 동기, 외부적 동기 순서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이기적인 동기와 이타적 동기가 높은 순서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3, 14, 20]. 간호대학생은 나이팅게일의 희생과 봉사의 정신에서 입각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실제 타인의 건강이 얼마나 향상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호혜성을 기반으로 참여 동기가 형성된 것이라 생각한다[15, 24]. 반면 외부적 동기가 평균점수보다 낮은 것은 주변의 강요에 의해 참여하는 것은 드물다는 것을 의미하며, 간호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봉사활동 참여에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인성 점수는 간호 대학생 1학년(4.42점)으로 한 선행연구보다 높았다[26]. 본 연구에서는 전체 학년을 포함한 대상자 특성을 고려할 때, 인성은 도덕적 행동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함으로써 학년별 인성 점수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21]. 특히 인성의 하위영역에서는 정의, 인지, 행동 순으로 이는 선행연구의 정의적 인성 수준이 가장 높고 행동적 인성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6]. 정의적 인성 특성은 외부적인 사회 환경 및 대인관계로 확대시켜 자신과 타인 인식,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훈련을 돕는 접근이 필요하겠다[6]. 반면 행동적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성 분석 연구[6]에서 정의적 인성이 가장 높은 것에 비해 행동적 인성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인성교육은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호혜성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은 간호대학생의 인성 함양을 대학발전의 목표로 두고 정책을 마련하여 봉사활동을 통한 실천적 인성 함양을 강조하고 인성의 행동적인 측면의 향상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점수는 중간수준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비슷하며 타 전공 대학생보다는 다소 높았다[27].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은 교육과정 내에 대인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수업과 임상실습을 통하여 많은 환자와 취약계층의 대상자를 만나고, 그룹별 실습과 조별과제를 통하여 협력을 도

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통한 대인관계 및 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학은 간호대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기 주장 훈련, 애니어그램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갈등해결 훈련과 같은 방법으로 대인관계 훈련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인관계 하위영역의 결과는 친근감, 이해성, 민감성, 의사소통, 만족감, 개방성, 신뢰감 순으로 나타났는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유사하다[28]. 이는 간호대학생은 향후 간호사로서 대상자들에게 친근감 있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유익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간호대학생에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개방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타 전공 수업의 참여 및 동아리 활동, 선후배 멘토링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관계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겠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중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에 따라 봉사활동 참여 동기, 인성 및 대인관계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대인관계 점수가 높았고[27],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와 가장 관련이 높은 것이 인성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5]를 지지한다. 대학생이 스스로 진로에 대해 탐색해보고 다양한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적극적인 태도로 전공의 정체성을 찾고, 타인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경험은 인성 함양에 영향을 준다[10].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원만히 형성해야 하므로 학부에서부터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이와 더불어 자신의 업무에 자신감을 갖는 인성과 대인관계를 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대학은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학업성취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어야 하며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과 직업 적응 체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봉사활동 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봉사활동 참여 동기, 인성 및 대인관계 점수가 높았는데,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와의 대인관계가 봉사활동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대인관계가 원활할수록 봉사활동 만족도가 높은 것과 비슷한 맥락이었다[29]. 봉사활동 만족도가 높은 것은 간호대학생들이 박애정신을 실천하는 간호사의 인성이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대인관계를 넓히거나 전공과 관련된 경험을 축적하는 등의 참여 동기가 충족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0].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의 만족도는 개인의 진로인식이나 자기개발의 노력으로 직업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므로[3], 만족도가 높은 경우 직업정체감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성과 대인관계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는 인성 및 대인관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참여 동기가 높은 수준일수록 자신을 존중하거나 타인에 대한 배려 수준이 높고, 대인관계 기술이 긍정적인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16, 20]. 간호대학생은 봉사활동 참여 시 호혜적 동기를 강화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하고, 개인의 발전과 직업과 연관된 경험을 쌓기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자신을 돌아보며 이해하는 인성을 함양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봉사활동을 통해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봉사활동 참여 동기의 수준이 높을수록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성과 대인관계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였으며[10],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인성과 대인관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학은 봉사활동의 참여 횟수나 시간을 단순하게 확인하기보다 간호대학생의 참여 동기에 따라 봉사활동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 인성과 대인관계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을 의무화 하기보다 자발성을 강조하여 자기효능감과 직업정체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간호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 인성, 그리고 대인관계 정도는 전공 만족도와 봉사활동만족도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간호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를 증진시키고 인성함양 및 대인 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를 높이고 봉사 활동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인성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 개인의 가치관과 직업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 인성 및 대인관계와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시행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참여 동기 수준은 3.18점, 인성은 4.62점, 대인관계는 3.74

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이었다. 일반적 특성 중 전공 만족도와 봉사활동 만족도에 따라 봉사활동 참여 동기, 인성 및 대인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봉사활동 참여 동기는 인성 및 대인관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예비간호사로서 간호대학생들은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인간 및 간호의 본질을 이해하고, 인성이나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대학은 학생이 봉사활동 참여 동기를 분명히 한 후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간호대학생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지역을 확대하는 등 표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것을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봉사활동 참여가 개인의 인성,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 의식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성숙된 간호대학생의 인성 개발을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ORCID

Eun-sun Ji	https://orcid.org/0000-0002-1666-2805
Mi-seon Son	https://orcid.org/0000-0003-2280-1637
Ka-ka Shim	https://orcid.org/0000-0003-4560-381X

REFERENCES

1. Chun SY, Kim WJ, Sung KO, Jung IH, Kim SA, Bang IJ. Korean vision for character education and its implementation plan.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October. Report No.2012-41.
2. Mun HN, Kim HO. Effect of personality and resilience on satisfaction with maj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8;24(4):298-306. <https://doi.org/10.11111/jkana.2018.24.4.298>
3. Dyson SE, Liu L, van den Akker O, O'Driscoll M. The extent, variability, and attitudes towards volunteering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mplications for pedagogy in nurse education. *Nurse Education in Practice*. 2017;23:15-22. <https://doi.org/10.1016/j.nepr.2017.01.004>
4. Son KW. Trends and challenges of the character education research.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2016;39:97-133. <https://doi.org/10.18850/jees.2016.39.04>
5. Lee MR, Kwag YK.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7;7(7):491-9. <https://doi.org/10.14257/ajmahs.2017.07.74>
6. Lim MH. Effects of character,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fessional

- self-concept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8):560-8. <http://dx.doi.org/10.5762/KAIS.2016.17.8.560>
7. Park BH, Kim SY. Patterns and influential factors of inter-regional migration of new and experienced nurses in 2011~2015.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7;47(5):676-88. <https://doi.org/10.4040/jkan.2017.47.5.676>
 8. Kim NY. The Effect of regulatory focus motivation for volunteer activities on youth's character -mediating effect of volunteer satisfaction-.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018;42:123-38. <https://doi.org/10.20993/jssw.42.6>
 9. Hu SH, Jung TE. Effects of volunteer activities on self-development and sociability-development of undergraduates: Focus on meaning of volunteering.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013;19(2): 133-58.
 10. Sim SS, Bang M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12): 634-42. <https://doi.org/10.5762/kaiss.2016.17.12.634>
 11. Heo SE. Convergence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service experienc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6; 7(4):85-96. <https://doi.org/10.15207/jkcs.2016.7.4.085>
 12. Kim SH, Park G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rmony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0;11(1):375-93. <https://doi.org/10.15703/kjc.11.1.201003.375>
 13. Lee HG. The effects of volunteering participation on happiness: focusing on the differential effects of volunteer participation field and age [master's thesi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8. pp.1-65.
 14. Seo YH, Yu HN, Lee KC, Shin JH.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satisfaction with majors, establishment of job values, and behavior for course preparation, depending on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on motivation in voluntary service activity linked with majors. *The Korean Journal of Growth and Development*. 2017;25(2):211-20.
 15. Lee JH. An inquiry into university freshmen's experiences and their awareness on humanity education.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2016;10(2):219-50.
 16. Kim JG, Lee TH, Han NK.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social responsi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8;24(1):21-9. <https://doi.org/10.11111/jkana.2018.24.1.21>.
 17. Faul F, Erdfelder E, Lang A, Buchner A.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2007;39(2):175-91. <https://doi.org/10.3758/bf03193146>
 18. Farrell JM, Johnston ME, Twynam GD. Volunteer motivation, satisfaction, and management at an elite sporting competitio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1998;12(4):288-300. <https://doi.org/10.1123/jsm.12.4.288>
 19. Strigas AD, Jackson Jr EN. Motivating volunteers to serve and succeed: Design and results of a pilot study that explores demographics and motivational factors in sport volunteerism. *International Sports Journal*. 2003;7(1):111-23.
 20. Kwak MJ. Effects of voluntary activities of the youths on the development of civil consciousness [master's thesis]. Seoul: Hanyang University; 2010. pp.1-86.
 21. Lee YS, Kang HY, Kim SJ. A validation study of the character index instrument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2013;31:261-82.
 22. Schlein A, Guernsey B, Stover L, Gurney B. *Relationship enhancement*. Sanfrancisco, CA: Jossey-Bass; 1971. p.400.
 23. Chun SK.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for rehabilitation of the schizophrenic patients [dissertation]. Seoul: Soongsil University; 1995. pp.1-178.
 24. Park PN. Relationships among volunteer activities, emotional intelligence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7;17(11):264-73.
 25. Lee MK, Jung DY. A study of nursing tasks, nurses'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in hospitals with no guardian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5;21(3):287-96. <https://doi.org/10.11111/jkana.2015.21.3.287>
 26. Kim SJ. A study of a character education plans according to character levels and requirements for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2016;23(2):1-19. <https://doi.org/10.15284/kjhd.2016.23.2.1>
 27. Kwak HW, Yi JE.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inical str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2):147-55. <http://dx.doi.org/10.5762/KAIS.2016.17.2.147>
 28. Lim EJ, Yi YJ. Comparison of operating room nurses and general ward nurses on communicative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within the medical tea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4;20(3):313-21. <https://doi.org/10.11111/jkana.2014.20.3.313>
 29. Chang HR, Lee SJ.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parent volunteers in school libraries: Centered on elementary school libraries in Anyang-Gwacheon a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2;46(1):183-200. <https://doi.org/10.4275/kslis.2012.46.1.183>
 30. Kim SJ, Bang KS, Kang KI, Song MK. Mentoring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participating in a health promo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8;24(2):137-48.